

아시아 중심에 우뚝 선 '전북대'

QS평가 4년 연속 지방거점국립대 2위 쾌거 국제 연구 협력·학계평가·국제화 등서 강세

전북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8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년 연속 지방거점국립대 가운데 2위에 올랐다. 국내 종합대학 가운데는 15위, 아시아권에서는 96위였다. 아시아 대학 가운데 100위 이내에 든 거점국립대는 전북대와 부산대 뿐이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503개, 국내 57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능력(60%), 교육수준(10%), 졸업생 평가(20%), 국제화(1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전북대는 올 평가에서 신설된 국제 연구 협력 평가 지표에서 국내 8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세부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계평가(30%)에서 16위, 논문당 인용수(10%)에서 14위 등 연구 경쟁력에서 강세를 보였다.

또한 교환학생 부문에서도 국내 18위에 올랐고, 특히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낸 학생 부문에서는 아시아 54위에

오르는 등 국제화 지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에 통하며 해외 대학에서 전북대를 찾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전북대는 △새깁 있는 모험인재 양성,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가장 걷고 싶은 캠퍼스 플레길 조성,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구축 등을 4대 브랜드로 선정해 육성하면서 대학 전체의 네임밸류를 높여가고 있다.

전북대 김재민 총장직무대리(교학부총장)은 "대학 구성원의 열정적인 땀방울이 우리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연구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만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도서관.

도교육청, 특별민원 워크숍... 업무능력 향상 기대

악성민원 응대요령 노하우 공유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2018 특별민원 워크숍'을 청사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실무담당자 및 소속 공무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민원이란 일반민원과 달리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인성적·행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담당자의 일반적인 응대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 7월 특별민원조사팀을 신설해 특별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법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고질·악성·반복민원 등 특별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민원직원의 다양한 응대방법과 해소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원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대면접촉, 심층상담 등 원만한 해결법도 함께 찾아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일·유사민원 해결사례의 지속적인 공유와 장기적인 워크숍 개최로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도와 특별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효율 유기태양전지 개발 연구 '우수'

모흐드나짐 박사·압둘라 대학원생 국제학회 최우수발표상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에너지소재 및 표면과학연구소(지도교수 신형식)의 모흐드 나짐 박사(Dr. Mohd Nazim)와 압둘라(Mr. Abdullah) 대학원생이 지난 17~19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린 ICES 2018 국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Sustainability)에서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

다. 이번 학회에서 모흐드 나짐 박사는 그래핀이 개질(改質)된 전도성 고분자(PEDOT:PSS)가 버퍼층으로 사용된 유기태양전지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전도성 고분자(PEDOT:PSS) 버퍼층을 이용한 유기태양전지보다 2배 높은 전력변환효율



모흐드 나짐 박사 압둘라 대학원생 (PCE)을 갖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압둘라 대학원생은 유기 화학

물 중의 하나인 벤조셀레나디아졸(be-nzoselediazole)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유기물을 개발, 이를 학회에서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지원사업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향후 이와 같이 버퍼층 개질과 새로운 유기물질 개발을 통해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이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22학년도 대입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도교육청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교육과정 설명회 열어

전북교육청이 예비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 군산을 시

작으로 31일 익산, 11월9일 정읍, 20일 남원, 23일 김제, 28일 진안에서 각각 교육과정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 설명회는 현재 중학

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를 주 대상으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고교교육 혁신방향(고교학점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고교체제 개편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

고 불안해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라며 "대입의 흐름과 방향을 바로 알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2018 LINC+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지난 23일 가졌다.

캡스톤 디자인은 창의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공학설계 팀프로젝트 교육

과정으로 기본설계 아이템 개발에서 설계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행한다.

이번 시상식은 12개 협약산업체 전문가의 지도와 함께 6개월여 동안

LINC+사업 학생들이 만든 18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스마트팜', '줄음운전 방지시스템', '배광각 확장으로 균조도를 개선한 LED 조명장치 개발' 등 7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작품 '스마트팜'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온실 제어 능

업 자동화 시스템이다.

아직 자동화 기술 접목이 미흡한 농업 분야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공급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심사위원장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은 23일 교내 3개 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주대, 사회적경제 발전에 앞장

교내 3개 기관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은 23일 교내 3개 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신현욱),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차경희), 전주대 사회적기업 두드림(대표 송재홍) 대표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과 참여 및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포럼 등 관련 활동의 추진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지원 및 확산을 위한 활동의 추진 △기타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주승 단장은 "LINC+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각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삼례농업협동조합

신나라! 맘 흘린 농업인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여는 꿈을 키우는 들

피어나라! 새로운 미래

농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꿈을 키우는 들

함나라! 생활의 모든 순간

누구나, 어디서나 스마트한 금융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들

대한민국 행복꿈틀

행복꿈틀은 농업인과 국민의 꿈을 키우는 틀이 되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NH농협의 약속입니다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세문지부

■전주농업협동조합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용진농업협동조합 ■소양농업협동조합 ■상관농업협동조합 ■구이농업협동조합 ■이서농업협동조합
 ■삼례농업협동조합 ■봉동농업협동조합 ■고산농업협동조합 ■화산농업협동조합 ■문주농업협동조합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협동조합 ■전주원에농업협동조합